

지역 소식통

김제 혁신정책자문위 전체 회의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민생 복지, 새만금성장, 미래농업 교육 분야 등 시정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시는 25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김제시 혁신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출범한 '김제시 혁신정책자문위원회'는 20명의 각계각층 전문가들로 이뤄져 있으며, △민생복지, △새만금 성장도시, △미래농업, △교육 문화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시장 주요 사업들에 대한 자문과 제안 등 시정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한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분과별 회의를 통해 '김제시 사회적 경제 지원 및 육성 방안', '산후 건강증진 거점센터 건립 추진', '만경경제 유원지 조성사업', '새만금 국립 치유농원원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문 활동이 진행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가정의 달 대체로운 독서문화 행사 개최

김제시립도서관이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대체로운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주요 행사로는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초성의 책 이름을 맞추는 가족 미션 챌린지 와 △가정의 날(5월15일)을 기념해 라탄 가족 화분 만들기를 운영 한다.

여기에 실감동화나라에서 진행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직접 체험하는 실감난 Day와 가족의 도서관 여행을 추억으로 기록해 주는, △도서관에서 추억 남기기! 가족 즉석 사진 촬영과 가족의 소중한 일깨워 주는 가정에서 함께 읽기 좋은, △가족사랑 추천도서 목록 배부 등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미션 챌린지가 5월에도 꾸준히 진행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주민의 쉼터인 도서관에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 보내도록 시민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주민참여예산 지속 확대

유희태 군수 확대 공약 이미 초과 달성... "다양한 목소리 행정 반영"

주민우선, 현장중심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 유희태 완주군수가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확대해 주민들의 행정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있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권한을 부여해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다.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유 군수는 예산 규모를 2022년 60억원, 2023년 67억5,000만원에서 올해는 73억6,000만원으로 22.7% 대폭 증액했다.

2025년도에는 이보다 늘려 83억6,000만원 규모를 공모하고 있다.

이로써 군은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도 높이고 있다.

특히, 공약 목표액인 62억5,000만원이 이미 초과 달성했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주민참여예산액은 총 1,855건, 196억원으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주민편의사업부터 아동·청소년, 청년, 사회적경제, 농업분야 등의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했다.

올해도 2025년도 군 단위 정책사업 5개 분야(군 정책, 아동·청소년, 청년, 사회적경제, 농업)와 읍·면 단위 지역사업(주민생활 편의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담아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며 "군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2025년도 83억6,000만원 규모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4월 한달간 접수하고 향후 사업부서 타당성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의 랜드마크... '완주·우석 전망대' 개관

우석대 대학본부 23층 복합문화공간, 옥상은 전망대로 조성

완주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는 '완주·우석 전망대 W-SKY 23'이 공식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25일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대학본관 23층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박노준 우석대 총장, 이

경에 완주군의회 부의장,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김효진 완주경찰서장, 김난희 완주교육청교육장 등 지역 유관기관 대표 및 관계자 등 100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완주군은 군비 7억 원을 투입해 대한민국 대학본부 건물로는 최고층을

자랑하는 삼례읍 우석대학교 대학본부 23층에 복합문화공간을, 옥상에는 전망 공간을 갖춘 전망대를 조성했다.

전망대에서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만경강 유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완주 상운리 고분군과 배매산성, 삼례토성 등으로 대표되는 완주 마한유적과 익산 왕궁리유적, 미륵사지로 대표되는 익산 백제유적, 고려 현종이 방문했던 삼례 역참터(현 삼례동부교회), 동학 삼례광장과 봉기추정지(삼례별), 일제강점기 쌀수탈을 위해 만들어진 대간선수로 등 주요 역사 자원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완주와 전주, 익산 도심지역을 둘러볼 수 있고, 서남쪽으로는 정음의 갈재와 부안 내면산, 새만금 일원까지도 조망이 가능하다. 복합문화공간에는 각종 전시와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유 군수는 "오늘 정식으로 공개된 W-SKY23 전망대가 전북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방문객 3,000만 유치를 선도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25일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3층에서 '완주·우석 전망대 W-SKY 23'이 공식 개관식을 열었다.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사랑에 쉼터 치유 프로그램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 치매안심센터 사랑에 쉼터는 치매환자의 인지 향상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25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사회적 농장 지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꿈트리에서 운동하GO, 먹GO, 쉬GO, 치유

하GO~ 텃밭정원 만들기'를 운영한다. 이번 치유 프로그램은 사랑에 쉼터 만경 교실에 참여하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김제시 치매안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사회적 농장 꿈트리 곤충농장(대표 이지현)에서 진행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꿈트리 곤충농장에서 농장의 지원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 △모종심기 △화전 만들기 △텃밭 산책 △허브차 만들기 △텃밭 수확 △수확 작물로 요리활동 △아쿠아포닉스 만들기 등을 통해 경증 치매 환자의 신체활동 기능을 향상시킨다. /김제=곽노태 기자



주경제센터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간담회를 추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 중소기업 간담회

기업대표 40여명 참석... 애로사항 청취

완주경제센터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간담회를 추진했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완주산단진흥회, 전북금형협회, 여성기업 등 기업대표자 40여 명이 참석해 완주군 및 전북도의 기업지원 시책 안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인력 채용, 산단 내 버스노선 개설 등이 제시됐고, 군은 참가자들과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적극 공유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중소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도시 1등 완주군'을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완주군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맞춤형 기업지원사업과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시행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사랑카드 쓰고 5% 캐시백 받으세요

김제사랑카드, 모악산뮤직페스티벌 캐시백 이벤트 진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의 성공적인 축제 기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악산뮤직페스티벌 기간(27일~28일)동안 김제사랑카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축제의 동부권 관광 활성화 취지에 맞게 해당업체를 축제 참여업체와 금산면 소재의 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해 진행하며, 이곳에서 김제사랑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결제금액의 5%가 소비자에게 캐시백으로 지급된다.

김제사랑카드 캐시백 이벤트는 이번 행사기간뿐만 아니라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시민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문화예, 지평선 축제 등 각종 지역축제 기간에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캐시백 지급은 김제사랑카드에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페이백과 달리 김제사랑카드 결제 시 바로 지급

이 되어 할인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김제사랑카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벤트는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해당업체 확인은 김제시 홈페이지 및 고향사랑캐시백의 '혜택 가맹점'에서 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해당 가맹점에서 김제사랑카드를 사용하면 충전할 때 10%, 캐시백으로 5%, 총 15% 할인이 되는 것"이라며 "고물가 상황이지만 지역경제와 연계한 이벤트 추진으로 김제사랑상품권이 시민들의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Advertisement for energy saving with a graphic of hands holding a globe and a list of tips: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Includes the slogan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and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